

古代의 韓·中·日 醫藥交流

- 『日本書紀』를 중심으로 -

신 순식* · 최 환수* · 양 영준* · 홍 원식*

Medical and Pharmaceutical exchange among Korea, China and Japan in ancient times—indicated in 『Ilbonseogi』

Soon-shik Shin, Hwan-soo Choi, Young-jun Yang, Won-sik Hong

Department of Medical History and Literatures,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²⁾

『Ilbonseogi』(edited A.D. 720) was studied to investigate the medical and pharmaceutical exchange among ancient Korea, China and Japan. It seemed that Korean and Chinese traditional medicine was introduced to Japan through Korea. It was also shown in 『Ilbonseogi』 that Koreans who lived in China and Japan during that time seemed to have active medical idea exchange. From various facts indicated in 『Ilbonseogi』, it was believed that Korean and Chinese traditional medicine was the basis for the foundation of Japanese traditional medicine.

【Key words】 『Ilbonseogi』, medical and pharmaceutical exchange

1. 머리말

『日本書紀』는 제1권에서부터 제30권에 걸쳐, 神代와 제1세인 神武天皇(B.C 660년)에서부터 제40세인 持統天皇(A.D 696년)에 이르기까지를 編年體의 형식을 빌어, 720년에 舍人親王이 총재관이 되어 그의 책임 아래 편찬된 현존하는 일본의 最古의 史書로 손꼽힌다.¹⁾

『일본서기』는 일본의 古代 역사를 이해하는데 중요할 뿐만 아니라 당시 일본과 한국·중국의 문화교류 상황을 파악하는데 귀중한 단서를 제공해 준다는데에도 그 의의가 크다. 특히 의약관련 내용에 있어 당시의 일본의 의약학 상황과 일본이 한국·중국과 어떤 의약교류속에서 일본의 의약학이 자리매김지워지는지를 알아내는데 귀중한 사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대의 한국·중국·일본사이에 있었던 의약교류의 모습을 『일본서기』에 있는 기록자료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韓國韓醫學研究所 醫史文獻研究室

1) 田添新 譯. 『完譯 日本書紀』. 三刷發行. 서울: 一志社, 1992.의 「해설」; 김희영 편자. 『이야기 일본사』. 개정3쇄발행. 서울: 청아출판사, 1996: 44.

II. 본론

일본이 고구려와 2회, 백제와 10회, 신라와 5회, 唐과 6회 의약 교류한 기록이 나온다.

1. 고구려와의 교류

일본이 고구려와 교류를 했다는 기록은 2회이다.

기록1 : 夏4월 戊戌朔(1일), 高句麗의 학문승들이 “우리의 동료 鞍作得志는 호랑이를 친구로 하여, 그 변신의 술을 배웠다. 혹은 마른 산을 바꿔 푸른 산으로 한다. 혹은 황토를 바꾸어 흰 물로 만든다. 각종의 기술을 다하여 무궁하다. 또 호랑이가 바늘을 주면서 ‘신중히 사람이 모르게 하여야 한다. 이로써 다스리면 낫지 않는 병이 없다’라고 말하였다. 과연 말하는 바와 같아서, 다스려서 낫지 않는 병이 없었다. 得志는 그 바늘을 기둥 속에 감추어 두었다. 후에 호랑이가 그 기둥을 부러뜨리고, 바늘을 가지고 도망갔다. 高句麗國에서는 得志가 귀국하려고 함을 알고, 독을 주어서 죽였다” 라고 말하였다.²⁾

기록2 : 2월 庚午朔 …… (中略) …… 甲申(15일), 조정의 의장대가 元且의 의식처럼 차렸다. 좌우대신·백관인 등이 4열로 紫宮門밖에 모였다. 粟田臣飯蟲 등 4인을 평의 가마를 메게 하고 앞서서 나왔다. 좌우대신·백관 및 百濟의 왕족 豐璋, 그 아우 塞城·忠勝, 高句麗의 시의 毛治, 新羅의 侍學士 들을 거느리고 뜰에 나왔다.³⁾

기록1은 鞍作得志라는 고구려의 學問僧이 皇極4년(645년)에 일본에 건너가서 학문은 물론 鍼과 침을 놓아 병을 치료하는 鍼術을 전한 사실을 보여준다. 고구려의 鍼術 수준이 높았음을 보여주고 있고, 이 침술이 일본에 전해져 일본의 鍼術 발달에 영향을 주었음을 알려준다.

기록2는 고구려 侍醫 毛治가 孝德天皇 白雉元年(650년, 寶藏王9년) 2월에 사신으로 百濟·新羅의 使節과 함께 일본의 王室行事에 참석하였다는 기사이다. 손홍열은 김두종과 이홍직의 견해와는 달리,⁴⁾ 모치가 일본의 궁중의식에 일부러 사절로 파견된 것이 아니고 이 의식보다 먼저 渡日하여 일본에서 의약의 임무를 맡아 보고 있다가 행사가 있어 참석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 모치가 일본에 갔을 당시에는 일본에 아직 醫事制度가 없었기 때문에⁵⁾ 모치는 일본의 시의가 아니

2) 皇極天皇4년(645년): “夏四月戊戌朔, 高句麗學問僧等言, 同學鞍作得志, 以虎爲友, 學取其術. 或使枯山變爲青山. 或使黃地變爲白水. 種種奇術, 不可殫究. 又虎授其鍼曰, 慎矣慎矣, 勿令人知. 以此治之, 病無不愈. 果如所言, 治無不差. 得志, 恆以其鍼隱置柱中. 於後, 虎折其柱, 取鍼走去. 高麗國, 知得志欲歸之意, 與毒殺之.”(田裕新譯. 위의 책, 431-432.)

3) 孝德天皇 白雉元年(650년): “二月庚午朔, …… (中略) …… 甲申, 朝廷隊仗, 如元會儀. 左右大臣·百官人等, 爲四列於紫門外. 以粟田臣飯蟲等四人, 使執雉輿, 而在前去. 左右大臣, 乃率百官及百濟君豐璋·其弟塞城·忠勝·高麗侍醫毛治·新羅侍學士等, 至中庭.”(田裕新譯. 앞의 책, 461-463.)

4) 金斗鍾의 견해: “高句麗 侍醫 毛治가 日本의 改元儀式에 참석하기 위하여 渡日한 것이다.”(金斗鍾, 『韓國醫學史』, 서울: 探求堂, 1979: 58.)

李弘植의 견해: “日本의 王廷儀式에 三韓인이 모두 入朝한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하여 일찍이 渡日하여 日本에서 侍醫를 하고 있던 毛治를 高句麗人の 대표로 동원한 것이다.”(李弘植, 『三國時代의 文獻學的 研究』, 高麗大學校大學院, 1969: 144-145.)

고 고구려의 시의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고구려에도 의료기구와 그에 따른 제도(侍醫 등의 醫職)가 있었을 것으로 상정하고 있고, 侍醫制度는 당시의 중국에도 있었고 이것이 고구려에 영향을 주어 고구려의 의료제도로 자리잡은 것으로 보고 있다.⁶⁾ 그러므로 고구려의 시의인 모치가 진작부터 일본에 건너가 의약의 일을 맡아보고 있었고, 또 일본의 중요한 국가의 행사에 초빙되었다는 것은 중국의 영향을 받은 고구려의 의약이 일본의 왕실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며, 고구려의 높은 의학수준을 반영하는 것이다. 다만,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음이 아쉬울 뿐이다.

2. 백제와의 교류

일본이 백제와 교류를 했다는 기록은 10회 나온다. 이 중 일본이 백제에서 약물을 들여온 기록은 2회이고, 의사 파견 기록은 8회이다.

기록1 : 6월에, …… (中略) …… 또 卜書·曆本, 여러 가지 약물을 올려라고 하였다.⁷⁾

기록2 : 6월에, …… (中略) …… 따로 칙하여, “醫博士·易博士·曆博士 등은 순번대로 교대하라. 上件의 色人(上記의 役職의 사람)은 곧 교대할 시기가 되었다. 돌아가는 사신에 팔려 교대하도록 하라.”고 하였다.⁸⁾

기록3 : 2월 百濟가 下部 杆率將軍 三貴, 上部 奈率 物部烏 들을 보내 구원병을 청하였다. 德率 東城子莫古를 보내고, 전번의 奈率 東城子言과 바꾸었다. 五經博士 王柳貴를 固德 馬丁安과 바꾸었다. 僧 曇慧 등 9인을 僧 道深 등 7인과 바꾸었다. 따로 칙을 받들어, 易博士 施德 王道良, 曆博士 固德 王保孫, 醫博士 奈率 王有昷陀, 採藥師 施德 潘量豊, 固德 丁有陀, 樂人 施德 三斤, 季德 己麻次, 季德 進奴, 對德 進陀를 보내왔다. 다 칭에 의하여 교대한 것이다.⁹⁾

기록4 : 冬11월 庚午朔(1일), 百濟國王은 還使 大別王들에 팔려서 經論 若干卷, 아울러 律師·禪師·比丘尼·呪禁師·造佛工·造寺工 6인을 헌상하였다. 이들은 難波의 大別王의 절에 안치시켰다.¹⁰⁾

기록5 : 冬10월, 百濟의 승 觀勒이 왔다. 그리고 曆의 책, 천문지리의 책과 아울러 遁甲方術의 책

5) 일본의 醫事制度는 天武天皇 大寶元年(701년)에 지어진 「大寶令」에 처음으로 만들어졌다.(富士川游 著 『日本醫學史』. 再版發行. 東京: 日新書院, 昭和18년: 29.)

6) 孫弘烈 著. 『韓國中世의 醫療制度 研究』. 서울: 修書院, 1988: 46-47·66.

7) 欽明天皇14년(553년): “六月, …… (中略) …… 又卜書·曆本·種種藥物, 可付送.”(田裕新 譯. 위의 책, 338.)

8) 欽明天皇14년(553년): “六月, …… (中略) …… 別勅, 醫博士·易博士·曆博士等, 宜依番上下. 今上件色人, 正當相代年月. 宜付還使相代.”(田裕新 譯. 앞의 책, 338.)

9) 欽明天皇15년(554년): “二月, 百濟遣下部杆率將軍三貴·上部奈率物部烏等, 乞救兵. 仍貢德率東城子莫古, 代前番奈率東城子言. 五經博士王柳貴, 代固德馬丁安. 僧曇慧等九人, 代僧道深等七人. 別奉勅, 貢易博士施德王道良·曆博士固德王保孫·醫博士奈率王有昷陀·採藥師施德潘量豊·固德丁有陀·樂人施德三斤·季德己麻次·季德進奴·對德進陀. 皆依請代之.”(田裕新 譯. 앞의 책, 341.)

10) 敏達天皇6년(557년): “冬十一月庚午朔, 百濟國王, 付還使大別王等, 獻經論若干卷, 并律師·禪師·比丘尼·呪禁師·造佛工·造寺工, 六人. 遂安置於難波大別王寺.”(田裕新 譯. 앞의 책, 359-360.)

을 바쳤다. 이때 書生 3,4인을 골라, 觀勸에게 학습시켰다. 陽胡史의 조상 玉陳은 曆法을 배웠다. 大友村主高聰은 天文遁甲을 배웠다. 山背臣日立은 方術을 배웠다. 모두 다 배워서 업을 이루었다.¹¹⁾

기록6 : 32년 夏4월 병오삭, 무신(3일), 중 한 사람이 도끼로 그 조부를 구타하였다. 그때 천황이 듣고 대신을 불러 조하여, “무릇 출가한 자는, 오로지 삼보에 귀의하여 다 계법을 지킨다. 어찌하여 후회하고 꺼리는 것 없이, 나쁜 일을 쉽게 범할 수가 있는가. 짐은 조부를 때린 중이 있다는 것을 들었다. 여러 절의 승니를 모두 모아서 추문하여라. 만일 사실이라면 중벌을 내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여러 절의 승니를 모아서 물었다. 나쁜 짓을 한 중과 아울러 여러 승니를 처벌하려고 하였다. 이때 백제의 관록승이 표를 올려, “불법은 서국에서 漢으로 와 300세를 지나, 백제국에 와서, 겨우 10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임금, 日本의 天皇이 현철함을 들으시고, 불상 및 경전을 헌상하여, 아직 100세도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승니는 아직 법률을 배우지 못하고, 나쁜 짓을 쉽게 범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여러 승니는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 나쁜 짓을 한 자를 빼놓고 그 이외의 승니는 모두 용서하여 죄를 주지 마시기를 앙원합니다. 이는 큰 공덕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天皇이 청허하였다. 무오(13일)에 조하여, “도인도 오히려 법을 범하는 수가 있다. 무엇으로 속인을 교회할 것인가. 고로 금후, 승정과 승도 등을 임명하여, 승니를 감독하여라”라고 하였다. 임술(17일), 관록승을 승정으로 하고, 안부덕적을 승도로 하였다. 같은 날, 아운련[이름이 빠졌다]을 법두로 하였다.¹²⁾

기록7 : 4년 春正月 丙午朔(1일), 大學寮의 여러 학생, 陰陽寮·外藥寮 및 舍衛(印度)의 女, 墮羅(觀貨羅)의 女, 百濟王 善光, 新羅의 仕丁들이, 약 및 진기한 물건을 바쳤다.¹³⁾

기록8 : 冬10월 癸酉朔 丙子(4일), 百濟 승 常輝에 30호를 주었다. 이 승은 100세였다. 庚辰(8일), 百濟의 승 法藏·優婆塞(속인으로 불교를 믿는 자) 益田直金鍾을 美濃에 보내, 白朮(胃의 약)을 다리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굶은비단·숨·피륙을 주었다.¹⁴⁾

기록9 : 11월 癸卯朔 …… (中略) …… 丙寅(24일), 法藏法師와 金鍾이 白朮을 다린 것을 바쳤다. 이날, 天皇을 위하여 招魂(혼이 나가지 않도록, 몸안에 두게 하는 제사)을 하였다.¹⁵⁾

11) 推古天皇10년(602년): “冬十月, 百濟僧觀勸來之。仍貢曆本及天文地理書, 并遁甲方術之書也。是時, 選書生三四人, 以俾學習於觀勸矣。陽胡史祖玉陳習曆法。大友村主高聰學天文遁甲。山背臣日立學方術。皆學以成業。”(田濬新 譯. 앞의 책, 381-382.)

12) 推古天皇32년(624년): “卅二年夏四月丙午朔戊申, 有一僧, 執斧毆祖父。時天皇聞之召大臣, 詔之曰, 夫出家者頓歸三寶, 具懷戒法。何無懺忌, 輒犯惡逆。令朕聞, 有僧以毆祖父。故悉聚諸寺僧尼, 以推問之。若事實者, 重罪之。於是, 集諸僧尼而推之。則惡逆僧及諸僧尼, 並將罪。於是, 百濟觀勸僧, 表上以言, 夫佛法, 自西國至于漢, 經三百歲, 乃傳之至於百濟國, 而僅一百年矣。然我王聞日本天皇之賢哲, 而貢上佛像及內典, 未滿百歲。故當今時, 以僧尼未習法律, 輒犯惡逆。是以, 諸僧尼惶懼, 以不知所如。仰願, 其除惡逆者以外僧尼, 悉赦而勿罪。是大功德也。天皇乃聽之。○ 戊午, 詔曰, 夫道人尚犯法。何以壽俗人。故自今已後, 任僧正僧都, 仍應檢校僧尼。○ 壬戌, 以觀勸僧爲僧正。鞍部德積爲僧都。即日, 以阿曇連 關名。爲法頭。”(田濬新 譯. 앞의 책, 400-401.)

13) 天武天皇4년(675년): “四年春正月丙午朔, 大學寮諸學生·陰陽寮·外藥寮, 及舍衛女·墮羅女·百濟王善光·新羅仕丁等, 貢藥及珍異等物進。”(田濬新 譯. 앞의 책, 523-524.)

14) 天武天皇14년(685년): “冬十月癸酉朔丙子, 百濟僧常輝封卅戶。是僧壽百歲。庚辰, 遣百濟僧法藏·優婆塞益田直金鍾於美濃, 令煎白朮。因以賜絁綿布。”(田濬新 譯. 앞의 책, 557.)

기록10 : 5월 庚子朔 戊申(9일), 多紀皇女들이 伊勢에서 돌아왔다. 이날 侍醫 百濟人 億仁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勤大壹位를 주었다. 100호를 주었다.¹⁶⁾

기록1은 일본이 欽明天皇14년(553년) 6월에 卜書·曆本과 함께 약물을 요청한 기록이고, 기록7은 天武天皇4년(675년) 봄에 약물을 수입한 기록이다. 일본에 수입한 약물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지 잘 알 수는 없지만, 백제의 약물이 중국과 많이 같았다고 한 것으로 보아¹⁷⁾, 白朮¹⁸⁾을 포함한 百濟産 약물이었을 것이다.

기록2는 欽明天皇14년(553년) 봄에 醫博士는 易博士·曆博士와 함께 순번대로 의사가 파견되고 있는 기록이다. 기록3은 欽明天皇15년(554년) 2월에 기록2의 3博士 이외의 학자와 기술자가 일본에 파견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도표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일본 파견 學者와 전문 技術者

專門別	番次	新 番	前 番
引率者		德率(4등급) 東城子莫古	奈率(6등급) 東城子言
儒學 學者	五經博士	王柳貴	五經博士 固德(9등급) 馬丁安
佛教 學者	僧	曇慧等 九人	僧 道深 等七人
技術系 專門家	易博士 施德(8등급) 王道良 曆博士 固德(9등급) 王保孫		분명치 않음
醫藥 專門家	醫博士 奈率(6등급) 王有容陀 採藥師 施德(8등급) 潘量豊 固德(9등급) 丁有陀		
技藝 專門家	樂人 施德(8등급) 三斤 季德(10등급) 己麻次 季德(10등급) 進奴 對德(11등급) 進陀		분명치 않음

위의 표로 미루어 볼 때, 欽明天皇15년(554년)에 백제에서 일본에 파견한 학자와 전문 기

15) 天武天皇14년(685년): “十一月癸卯朔 …… (中略) …… 丙寅, 法藏法師·金鍾, 獻白朮煎. 是日, 爲天皇招魂之.”(田濬新 譯. 앞의 책, 557-558.)

16) 天武天皇 朱鳥元年(686년): “五月庚子朔戊申, 多紀皇女等至自伊勢. 是日, 侍醫百濟人億仁病之臨死. 則授勤大壹位. 仍封一百戶.”(田濬新 譯. 앞의 책, 559-560.)

17) “五穀雜果菜蔬及酒醴餼饌藥品之屬, 多同于內地, 唯無駝驢騾羊鷓鴣等.”(『周書』卷49 「列傳」第41 「百濟」.)

18) 冬10월 癸酉朔 丙子(4일), 百濟 승 常輝에 30호를 주었다. 이 승은 100세였다. 庚辰(8일), 百濟의 승 法藏·優婆塞(승인으로 불교를 믿는 자) 益田直金鍾을 美濃에 보내, 白朮(胃의 약)을 다리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굶은비단·숨·피륙을 주었다.[冬十月癸酉朔丙子, 百濟僧常輝封卅戶. 是僧壽百歲. 庚辰, 遣百濟僧法藏·優婆塞益田直金鍾於美濃, 令煎白朮. 因以賜純綿布.](田濬新 譯. 위의 책, 557.)라는 기록이 이를 뒷받침 한다.

술자는 모두 7개 분야(五經博士·僧·易博士·曆博士·醫博士·採藥師·樂人)에 20명(인술자 1명 포함)이나 된다. 그 중 의학 전문가는 醫博士 1명(王有昴陀)과 採藥師 2명(潘量豐·丁有陀) 등 3명이었고, 前年인 553년 이들의 교대를 요청할 때 약물을 청구하였던 것으로 보아 약물도 함께 보내졌을 것이다.

기록4는 敏達天皇6년(威德王24년, 557년) 11월에 다른 기술자(5명)와 함께 呪禁師1명을 파견한 기록이다. 기록3과 기록4를 미루어 보면, 백제는 일본에 醫博士·採藥師·呪禁師 등 3분야의 전문직을 모두 파견함으로써 다른 분야보다 더 많은 기여를 하였을 것이다.

기록5는 推古天皇10년(602년) 10월에 百濟의 승 觀勒이 曆書·天文·地理·遁甲·方術 등의 책을 가지고 일본에 건너가 書生을 가르쳤다는 기록이다. 여기서 方術書가 바로 의약과 관련된 책이다.¹⁹⁾ 기록6은 推古天皇32년(624년)에 觀勒이 일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우대를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기록이다.

기록8-9는 天武天皇14년(685년) 10월과 11월의 두 차례에 걸쳐 百濟의 승 法藏法師와 優婆塞 益田直金鍾이 白朮이라는 약물요법을 쓰고, 또 招魂이라는 정신요법을 같이 써서 좋은 효과를 거두어 일본의 천황으로부터 하사품을 받는 기록이다. 기록10은 天武天皇 朱鳥元年(686년)에 侍醫 百濟人 億仁이 병으로 죽게 되었을 때 천황으로부터 勳大壹位를 받고 거듭해서 100戶를 받는 기록이다. 따라서 백제의 의사가 일본의 왕실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일본에서 의사로서의 의술을 인정받고 있는 좋은 사례이다. 백제의 의사가 일본의 왕실의료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백제의 의약이 자연스럽게 일본에 이식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3. 신라와의 교류

일본이 신라와 교류를 했다는 기록은 5회 나온다. 약물 수입에 관한 기록이 3회이고, 良醫 청구에 관한 기록이 2회이다.

기록1 : 3년 春正月 辛酉朔(1일), 사람을 新羅에 보내 좋은 의사를 구하였다.²⁰⁾

기록2 : 秋8월, 의사가 新羅에서 왔다. 天皇의 병을 고치도록 하였다. 얼마 안 되어 병이 다 나았다. 天皇이 기뻐하고, 의사에게 상을 후하게 주어 귀국하게 하였다.²¹⁾

기록3 : 4년 春正月 丙午朔(1일), 大學寮의 여러 학생, 陰陽寮·外藥寮 및 舍衛(印度)의 女, 墮羅(靑貨羅)의 女, 百濟王 善光, 新羅의 仕丁들이, 약 및 진기한 물건을 바쳤다.²²⁾

기록4 : 夏4월 …… (中略) …… 戊子(19일), 新羅가 바친 물건이 筑紫에서 왔다. 良馬 1

19) 方術은 卜筮·占驗·星相·醫術 등을 말하는 것으로 方技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漢書』卷30「藝文志」)

20) 允恭天皇3년(414년): “三年春正月辛酉朔, 遣使求良醫於新羅.”(田裕新 譯. 위의 책, 216-217.)

21) 允恭天皇3년(414년): “秋八月, 醫至自新羅. 則令治天皇病. 未經幾時, 病已差也. 天皇歡之, 厚賞醫以歸于國.”(田裕新 譯. 앞의 책, 216-217.)

22) 天武天皇4년(676년): “四年春正月丙午朔, 大學寮諸學生·陰陽寮·外藥寮, 及舍衛女·墮羅女·百濟王善光·新羅仕丁等, 捧藥及珍異等物進.”(田裕新 譯. 앞의 책, 523-524.)

匹, 노새 1頭, 개 2狗, 鑲金器(彫刻한 金器) 및 金·銀·霞錦·綾羅·虎豹의 皮·藥物 따위 모두 100여 종이였다. 또 智祥·健勳들이 따로 바친 물건은 金·銀·霞錦·綾羅·金器·屏風·鞍皮·絹布·藥物 따위 각각 60여 종이였다.²³⁾

기록1-2는 允恭天皇3년(414년) 1월에 일본이 신라에 良醫를 청하고 그해 8월에 신라의 의사가 일본에 건너가 천황의 병을 완치시켜 그 댓가로 상을 후하게 받고 귀국한 기록이다. 이는 신라의 의술이 일본 보다 앞서 있고, 천황의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신라의 의약이 일본으로 이식되었을 것이다.

기록3은 天武天皇4년(676년) 1월에, 기록4는 天武天皇 朱鳥元年(686년) 4월에 일본은 신라로부터 다른 물품과 함께 수입하고 있는 기록이다. 그런데 그 약물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아마도 신라의 특산물인 人蔘·牛黃 등의 類가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4. 唐과의 교류

일본이 唐과 교류를 했다는 기록은 6회 나온다. 遣唐使 관련 기록이 4회이고, 唐의 의사가 일본을 방문한 기록은 1회이다.

기록1 : 9월 辛未朔 乙亥(5일), …… (中略) …… 이때 唐國에 보낸 이는 學生 倭漢直福因·奈羅譯語惠明·高向漢人玄理·新漢人大昉, 學問僧 新漢人日文(僧旻)·南淵漢人請安·志賀漢人慧隱·新漢人廣濟 등, 모두 8인이었다.²⁴⁾

기록2 : 31년 秋7월 …… (中略) …… 이때 大唐의 학문승 惠齋·惠光 및 醫師 惠日·福因들이 智洗爾들을 따라왔다. 惠日 등이, “唐國에 유학한 학자가 학업을 이루었으니, 부르십시오. 또 大唐의 나라는 법식이 완벽한 훌륭한 나라입니다. 항상 왕래하심이 좋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²⁵⁾

기록3 : 秋8월 癸巳朔 丁酉(5일), 大仁 犬上君三田稻, 大仁 藥師惠日을 大唐에 보냈다.²⁶⁾

23) 天武天皇 朱鳥元年(686년): “夏四月 …… (中略) …… 戊子, 新羅進調, 從筑紫貢上. 細馬一匹·駿一頭·犬二狗·鑲金器, 及金·銀·霞錦·綾羅·虎豹皮, 及藥物之類, 并百餘種. 亦智祥·健勳等別獻物, 金·銀·霞錦·綾羅·金器·屏風·鞍皮·絹布·藥物之類, 各六十餘種.”(田濬新 譯. 앞의 책, 559.)

24) 推古天皇16년(608년): “九月辛未朔乙亥, …… (中略) …… 是時, 遣於唐國學生倭漢直福因·奈羅譯語惠明·高向漢人玄理·新漢人大昉, 學問僧新漢人日文·南淵漢人請安·志賀漢人慧隱·新漢人廣濟等, 并八人也.”(田濬新 譯. 앞의 책, 390.)

25) 推古天皇31년(623년): “卅一年秋七月, …… (中略) …… 是時, 大唐學問者僧惠齋·惠光, 及醫惠日·福因等, 並從智洗爾等來之. 於是, 惠日等共奏聞曰, 留于唐國學者, 皆學以成業. 應喚. 且其大唐國者, 法式備定之珍國也. 常須達.”(田濬新 譯. 앞의 책, 398.)

26) 舒明天皇2년(630년): “秋八月癸巳朔丁酉, 以大仁犬上君三田稻·大仁藥師惠日, 遣於大唐.”(田濬新 譯. 앞의 책, 411.)

기록4 : 4년 夏5월 辛亥朔 壬戌(12일), 大唐에 보낼 대사 小山上 吉士長丹, 부사 小乙上 吉士駒[駒, 다른 이름은 絲], 학문승 道嚴·道通·道光·惠施·覺勝·辨正·惠照·僧忍·知聰·道昭·定惠[定惠는 내대신의 장자다]·安達[安達は 中臣渠每連의 아들]·道觀[道觀은 春日粟田臣百濟의 아들], 학생 巨勢臣藥[藥은 豊足臣의 자다], 氷連老人[老人은 眞玉의 아들. 或本에, 학문승 知辨·義德, 學生 坂合部連磐積을 보냈다], 모두 121인이 같이 한 배에 탔다. 室原首御田을 송사로 하였다. 다른 대사(제2조) 大山下 高田首根麻呂[다른 이름은 八掬脛], 부사 小乙上 掃守連小麻呂, 학문승 道福·義向, 모두 120인이 같이 한 배에 탔다. 土師連八手를 송사로 하였다.²⁷⁾

기록5 : 2월, 大唐에 보낼 押使(사인 중 신분이 높은 자) 大錦上 高向史玄理[或本에, 夏5月, 大唐에 보낼 押使 大花下 高向玄理라고 말하였다], 대사 小錦下 河邊臣麻呂, 부사 大山下 藥師惠日, 判官 大乙上 書直麻呂, 宮首兒彌陀[或本에 判官 小山下 書直麻呂라 하였다], 小乙上 岡君宜, 置始連大伯, 小乙下 中臣間人連老[老, 이를 於喩(오유)라 한다], 田邊史鳥 등을 두 배에 분승시켰다. 수개월 동안 방황하다가, 新羅道(遣唐使의 北路)를 잡아, 萊州에 묵었다. 드디어 京(長安)에 이르러, 천자를 奉覲하였다. 이에 東宮監門 郭丈舉는 자세하게 日本國의 지리 및 국초의 神의 이름을 물었다. 다 물음에 따라 답하였다. 押使 高向玄理는 大唐에서 죽었다[伊吉博得(日本外交의 중대 전기였던 齊明 - 天智朝에 소장 외교관으로서 활약하였다)이 말하였다. 학문승 惠妙는 唐에서 죽었다. 知聰은 바다에서 죽었다. 智國도 바다에서 죽었다. 智宗은 庚寅年에 新羅의 배편으로 돌아왔다. 覺勝은 唐에서 죽었다. 義通은 바다에서 죽었다. 定惠는 乙丑年에 劉德高의 배편으로 돌아왔다. 妙位·法勝, 학생 氷連老人·高黃金 모두 12인과 따로 倭種(倭의 混血兒)인 韓智興·趙元寶는 금년 사신과 같이 돌아왔다].²⁸⁾

기록1은 推古天皇16년(608년) 9월에 學生 倭漢直 福因이 7인과 함께 隋나라에²⁹⁾ 유학간 것을 기록한 것이다. 기록2는 推古天皇31년(623년) 7월에 학문승 惠齋·惠光과 함께 醫師 惠日·福因 등이 智洗爾를 따라 唐에 유학하고 당나라의 선진문화와 교류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는 기록

27) 孝德天皇 白雉4년(653년): “四年夏五月辛亥朔壬戌, 發遣大唐大使小山上吉士長丹, 副使小乙上吉士駒, 駒, 更名絲. 學問僧道嚴·道通·道光·惠施·覺勝·辨正·惠照·僧忍·知聰·道昭·定惠 定惠內大臣之長子也. 安達 安達中臣渠每連之子. 道觀, 道觀春日粟田臣百濟之子. 學生巨勢臣藥 藥豊足臣之子. 氷連老人, 老人眞玉之子. 或本, 以學問僧知辨·義德, 學生坂合部連磐積而增焉. 并一百廿一人, 俱乘一船. 以室原首御田, 爲送使.”(田濬新 譯. 앞의 책, 465.)

28) 孝德天皇 白雉5년(654년): “二月, 遣大唐押使大錦上高向史玄理, 或本云, 夏五月, 遣大唐押使大花下高向玄理. 大使小錦下河邊臣麻呂, 副使大山下藥師惠日, 判官大乙上書直麻呂·宮首阿彌陀 或本云, 判官小山下書直麻呂. 小乙上岡君宜·置始連大伯·小乙下中臣間人連老 老, 此云於喩. 田邊史鳥等, 分乘二船. 留連數月. 取新羅道, 泊于萊州. 遂到于京, 奉覲天子. 於是, 東宮監門郭丈舉, 悉問日本國之地里及國初之神名. 皆隨問而答. 押使高向玄理, 卒於大唐. 伊吉博得言, 學問僧惠妙, 於唐死. 知聰, 於海死. 智國, 於海死. 智宗, 以庚寅年, 付新羅船歸. 覺勝, 於唐死. 義通, 於海死. 定惠, 以乙丑年, 付劉德高等船歸. 妙位·法勝, 學生氷連老人·高黃金, 并十二人, 別倭種韓智興·趙元寶, 今年共使人歸.”(田濬新 譯. 앞의 책, 467.)

29) 원문에는 “唐나라”로 되어 있으나 推古16년(608년)은 “隋나라(581-618)”에 해당되어 “隋나라”로 바꾸었다.

이다. 기록3은 舒明天皇2년(630년) 8월에 大仁 藥師 惠日이 당에 파견되는 것을 기록한 것이다. 기록4는 孝德天皇 孝德天皇 白雉4년(653년)에 학문승 知聰이 다른 학문승·대사·부사 등 120인과 함께 당나라에 간 것을 기록한 것이다. 기록5는 孝德天皇 白雉5년(654년) 2월에 부사의 자격으로 大山下 藥師 惠日이 당에 파견되고 知聰이 바다에서 죽은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기록1과 기록2에 의하면, 608년 福因은 처음 隋나라에 학생신분으로 무엇을 배우러 유학을 갔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623년에 의사의 신분으로 당나라를 방문하고 있고, 또 당시에는 직업이 대대적으로 이어지는 관례로 보아 처음에는 학생으로 의학을 공부하려 갔다가 뒤에는 선진의료를 배우러 갔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기록2·3·5에 의하면, 惠日은 623년에 醫師 신분으로 당나라를 방문하고 돌아와 당나라의 고급문화와의 절대적인 교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630년에는 大仁 藥師의 신분으로, 그리고 654년에는 副使 大山下 藥師의 신분으로 3차례나 방문하고 있고 또 신분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 그는 일본이 당나라와의 의약뿐만이 아니라 문화교류에 있어 절대적이었음을 보여준다. 처음에는 醫師이다가 뒤에는 藥師로 보이는데, 이는 의사이면서도 특히 약물 지식에 정통한 인물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惠日은 다름아닌 고구려 의사 德來의 5世孫이다.³⁰⁾ 따라서 德來는 일본에 건너가 대대로 醫業을 하고 그의 후손인 惠日은 遣唐使로 당나라에 파견되어 의술을 배워왔는 것으로 보아 고구려와 당나라의 의학은 일본의 고대의학이 성립하는데 기초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62년에 吳人 知聰은 『明堂圖』 등 醫書164권과 유교·불교 서적, 佛像·樂器 등을 가지고 고구려를 거쳐 일본에 건너갔다. 그의 아들 善那隨父는 의학을 배우고 또 醫術이 정밀하여 일본의 欽明天皇은 그에게 “和藥使主”라는 稱號와 함께 “福常”이라는 이름을 下賜하였다. 그 뒤에 지충의 자손은 대대로 일본의 難波(지금의 大阪)에서 살았다. 그는 지금까지 명확하게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데, 中醫藥文獻을 휴대하고 일본에 건너간 가장 이른 중국의 醫家이다.³¹⁾ 일본과 중국의 의학교류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여기에서 말하는 知聰이 기록4-5에서 말하는 知聰과 동일한 인물인지는 의문이다. 知聰이 書籍을 가지고 고구려를 거쳐 일본에 갔을 때는 562년이고, 다른 학문승과 같이 당나라를 방문했을 때는 653년이고, 바다에서 죽었을 때는 654년이어서 각각 91년과 92년의 차이가 난다. 『일본서기』에 지충에 대한 의약과 관련된 기록이 나와 있지 않고, 지충이 장수하지 않은 이상 같은 인물로 보는데에는 어려움이 뒤따른다.

30) “奈良等遠祖德來本高麗人，歸百濟國，昔泊瀨朝倉朝廷(雄略)詔百濟國，訪求才人，爰以德來貢進聖朝。德來五世孫惠日，小治田朝廷御世(推古)，被遣大唐，學得醫術因號藥師，遂以爲姓。今愚聞子孫，不論男女，共蒙藥師之姓，竊恐命實錯亂，伏願改藥師字，蒙難波連，許之。”(『續日本紀』卷20「孝謙」天平寶字2年4月(758年)「己巳條」) 德來가 의사라는 기록은 분명하게 나오지 않는다. 손홍열은 “才巧”(手工匠)와는 다른 “才人”(學問과 技術을 겸비한 자)이라는 기록과 일본에 건너간 韓人과 漢人의 외국인은 대대로 같은 직업을 계승하는 경우가 많다(李弘植의 견해: 李弘植. 『韓國古代史의 研究』. 서울: 新丘文化社, 1971: 371-378.)는 것에 근거를 두고 덕래를 의사로 보고 있다.(孫弘烈 著. 위의 책, 66.)

31) 潘桂娟·樊正倫 編著. 『日本漢方醫學』. 第1版 第1次印刷.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4: 3.

III. 맺음말

『일본서기』에는 일본이 고구려와 2회, 백제와 10회, 신라와 5회, 唐과 6회 등 외국과 의약 교류한 기록이 총 23회 나온다. 이를 분석하여 보면, 고구려의 醫術·侍醫制度和 鍼術이 일본에 들어갔고, 백제의 醫博士·採藥師·呪禁師가 일본에 파견되고 白朮 등의 약물이 들어갔으며, 신라에 훌륭한 醫師와 藥物을 요청했다는 내용이 주된 골자인데, 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한국의 醫藥學이 일본에 들어가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백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직접 唐나라의 선진 의약학을 배우러 일본의 의사가 唐에 파견되는데, 그들은 다름아닌 고구려의 후손이다.

따라서, 일본은 한국을 통하여 한국의 고유의학은 물론 한국에 들어온 중국 의학학을 받아들이고, 또 직접 중국과 일본에 뿌리를 내린 한국의 후손이 교류를 하여 중국 의학학을 수용함으로써, 한국과 중국의 의학학적인 이론과 치료가 일본의 고대의의학 형성에 뿌리가 되고 있음을 보다 사실적으로 보여준다.

참고문헌

1. 田裕新 譯. 『完譯 日本書紀』. 三刷發行. 서울: 一志社, 1992.
2. 김희영 편자. 『이야기 일본사』. 개정3쇄발행. 서울: 청아출판사, 1996.
3. 金斗鍾. 『韓國醫學史』. 서울: 探求堂, 1979.
4. 李弘植. 「三國時代의 文獻學的 研究」. 高麗大學校大學院, 1969.
5. 富士川游 著. 『日本醫學史』. 再版發行. 東京: 日新書院, 昭和18년.
6. 孫弘烈 著. 『韓國中世의 醫療制度 研究』. 서울: 修書院, 1988.
7. 『周書』卷49 「列傳」第41 「百濟」.
8. 『漢書』卷30 「藝文志」.
9. 『續日本紀』卷20 「孝謙」 「天平寶字2年 4月」(758年) 「己巳條」.
10. 李弘植. 『韓國古代史의 研究』. 서울: 新丘文化社, 1971.
11. 潘桂娟·樊正倫 編著. 『日本漢方醫學』. 第1版 第1次印刷.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4.